

“포장산업에 도전하는 젊은 학자!”

안병국 교수/신성전문대학 산업포장과

“오 즘 환경문제로 인해 각 업계가 신경이 곤두서있는데, 물론 환경도 중요하지만 그전에 우선 각 상품의 적정성 문제와 기능성의 문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충남 당진에 위치한 신성전문대학의 개교를 앞두고 한창 바쁜 안병국교수를 만났다. 더욱이 이번에 산업포장과 교수로 발탁되어 더욱 분주하다. 한국에서는 아직 산업포장과가 생소하고, 포장산업의 열악한 환경속에서 이 과를 창설한다는 것 자체가 어찌보면 모험적이기도 하지만 안병국교수는 나름대로 중요성을 피력했다.

- 먼저 산업포장과의 교수님이 되시길 축하드립니다. 요즘 산업포장과의 준비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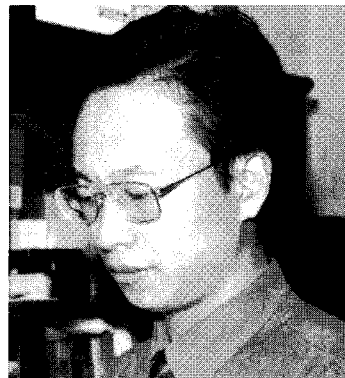
= 무척 힘듭니다. 더욱이 제가 교수라고 하기에는 젊기 때문에 주위의 눈초리(?)도 신경 쓰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젊은 것도 장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커리큘럼도 완성되어졌고..... 남은 건 지금까지 구상해온 것을 학생들과 함께 연구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 대략적인 커리큘럼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우선 제가 모태로 삼는 것은 동국전문대학입니다. 저의 학교보다 선배적이고 지금까지 잘 진행되어져 왔다고 보거든요. 신성전문대학에선 심층적인 부분보다는 개괄적이고 보편적인 것을 설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산업포장개론, 포장재료가공, 식품포장, 포장기계, 포장시험평가, 유통공학, 포장설계 및 규격, 지류포장, 포장환경학, 포장인쇄기술, 포장디자인, 제품디자인, 포장개발실습 등입니다. 전체적으로 포장공학쪽을 70%, 디자인쪽을 30% 정도로 잡았습니다.

- 수업의 진행방식과 아울러 민감한 부분인데 학생들의 취업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 이론과 실습을 겸비한 총체적 개념정리로 하려고 합니다. 교내의 실험기구를 한층 이용하여 생소한 부분을 학생들에게 일깨워 주고 현장실습(당진내에 있는 포장업체)을 통해 생동감 있는 교육을 하려 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반복하여 우리 나라 포장산업의 전문기술인을 배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문제는 학생수는 80명인데 교수진이 저 하나 뿐이라는 점입니다. 나름대로 전문적인 시간 강사를 초빙할 계획입니다.



◀ 약력: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임상공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원 졸업, 한국식품개발연구원 - 산업화학연구부 포장연구실 (4년) 박사과정 수료, 필름원료인 셀룰로스 유도재 제조필프롤드연구

취업문제는 우선 학생들에게 기사시험이라는 것을 통해 동기를 부여할 생각입니다. 나름대로 학생들 적성을 고려해 연구소나 기타 포장업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산학연이 합동하여 고민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겠지요.

- 끝으로 포장업계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 언제부턴가 저의 포장업계는 환경문제의 바람을 타고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물론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선은 본질적인 면을 외면시 하는 게 안타깝습니다. 포장산업의 줄기는 바로 생산품의 부산물을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적정성과 기능성을 살리는 것에 있습니다.

환경측면만 너무 민감하게 다루다 보니 포장업계는 서로의 이익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각 업계의 입장은 바로 전문기술인들의 판단에 맡겨야 되지 않을까요? 따라서 전문기술인의 양성도 필요하기 때문에 동국전문대학이나 저의 학교와 같이 포장과를 개설한 것이고, 그곳에서 양성되는 전문기술인의 과학적 판단으로 각 업계의 상품가치(재활용 측면) 또한 평가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나라 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리라 확신합니다. 더불어 포장학회의 활성화와 포장협회를 중심으로 한 포장산업 육성(세미나 심포지엄 등) 또한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각 업계의 문제점을 상호교환 -포장정보를 통해- 하여 해결하려는 자세(공정성 경쟁)가 지금의 현실적 과제라 생각합니다. <변준섭>